



## 1 | 검사실시 배경

- 금융감독원은 '23년도 자산운용사에 대한 중점 검사사항\*으로 대주주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선정한 바 있으며,

\* 「2023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」(23.3.16. 보도자료 참조)

- 그 일환으로 운용사의 대주주·임직원이 PFV(Project Financing Vehicle), 펀드 등의 운용 과정에서 지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혐의에 대해 테마검사를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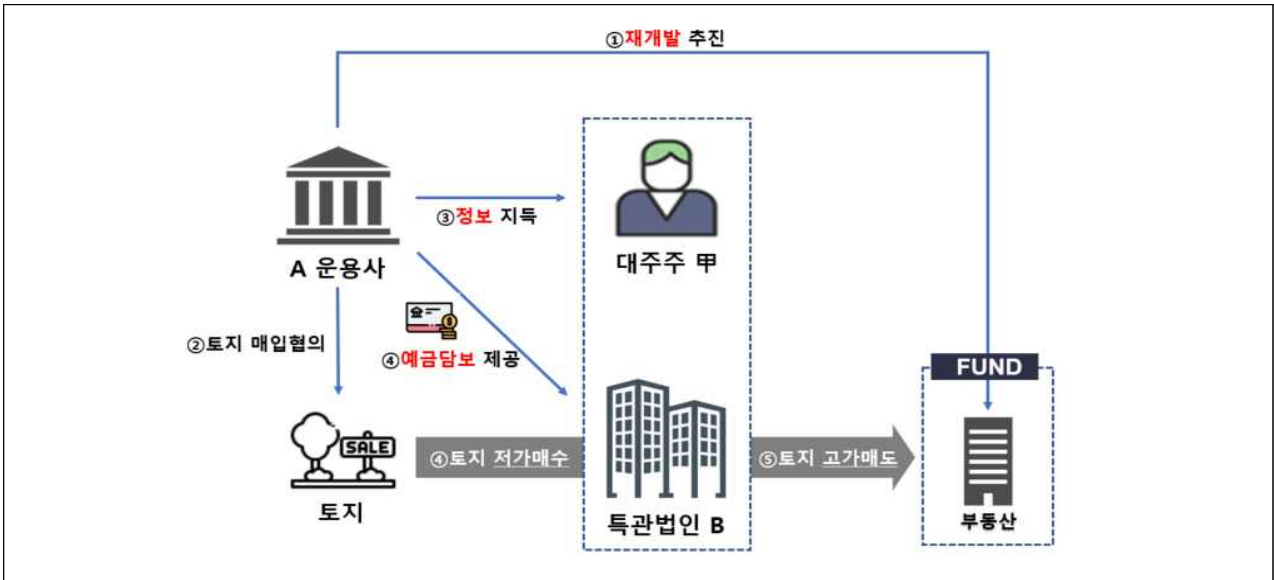
## 2 | 주요 검사내용[잠정]

※ 위반혐의는 향후 제재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

- A 운용사 대주주 甲은 대표이사, 이사회 의장,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직무를 겸임하면서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
-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,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방식으로 펀드 및 운용사의 이익 등을 훼손하고 본인,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를 발견

### ① 미공개 재개발 정보 활용 등

- 대주주·대표이사 甲은 자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가 필요하여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
- 특수관계법인 B 명의로 동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하고 단기간내 자사 펀드에 고가 매각하는 방식으로 〇〇억원의 매각 차익을 수취
-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특수관계법인 B에게 토지 매입자금을 우회지원할 목적으로
- 특수관계법인 B의 은행 대출시 A 운용사의 예금 〇〇억원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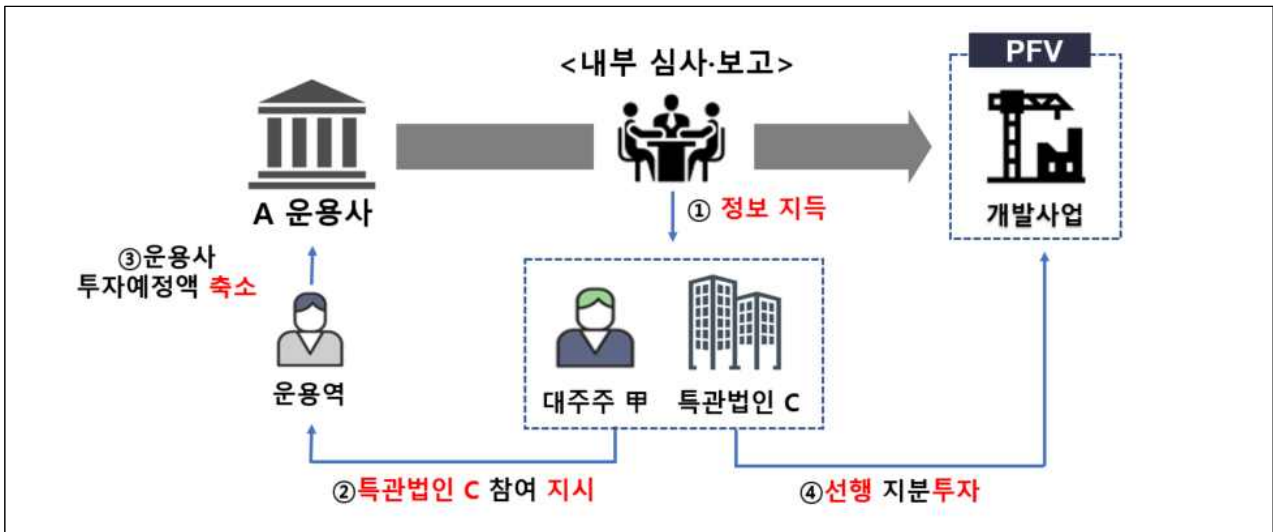


## ② 미공개 프로젝트 정보 활용

- 대주주·대표이사 甲은 프로젝트 진행경과를 사전에 보고 받는 과정에서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직무정보\*를 지득하자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·우회 투자

\*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·리스크 관련 내부 심사정보, 외부 투자자 동향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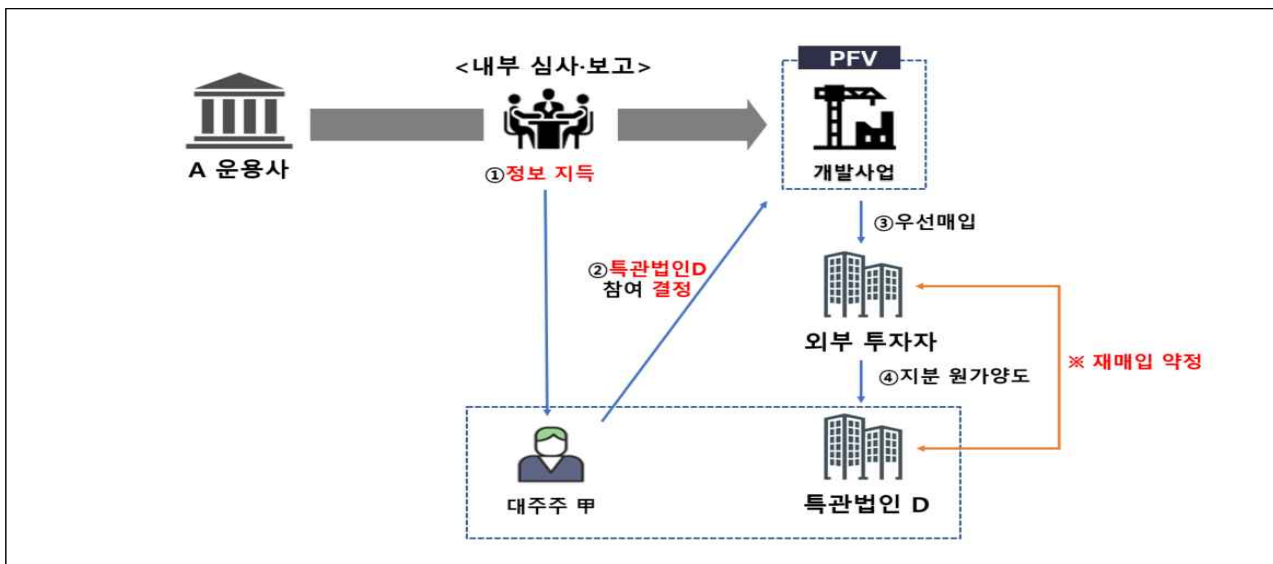
- ① **(선행투자)** 대주주·대표이사 甲은 내부정보를 지득하자 투자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운용역에게 특수관계법인 C의 투자기회를 마련할 것을 지시
- 운용역은 A 운용사의 PFV 투자 예정액을 축소하여 특수관계법인 C가 PFV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변경



○ (우회투자) 대주주·대표이사 甲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 D 명의로 PFV 지분에 투자하려 했으나

- PFV 설정 당시 특수관계법인 D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자, 외부 투자자\*가 PFV 지분을 우선매입하고 특수관계법인 D가 자금 확보 후 원가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우회투자

\* A 운용사는 동 PFV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주 구성 및 투자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보유



### ③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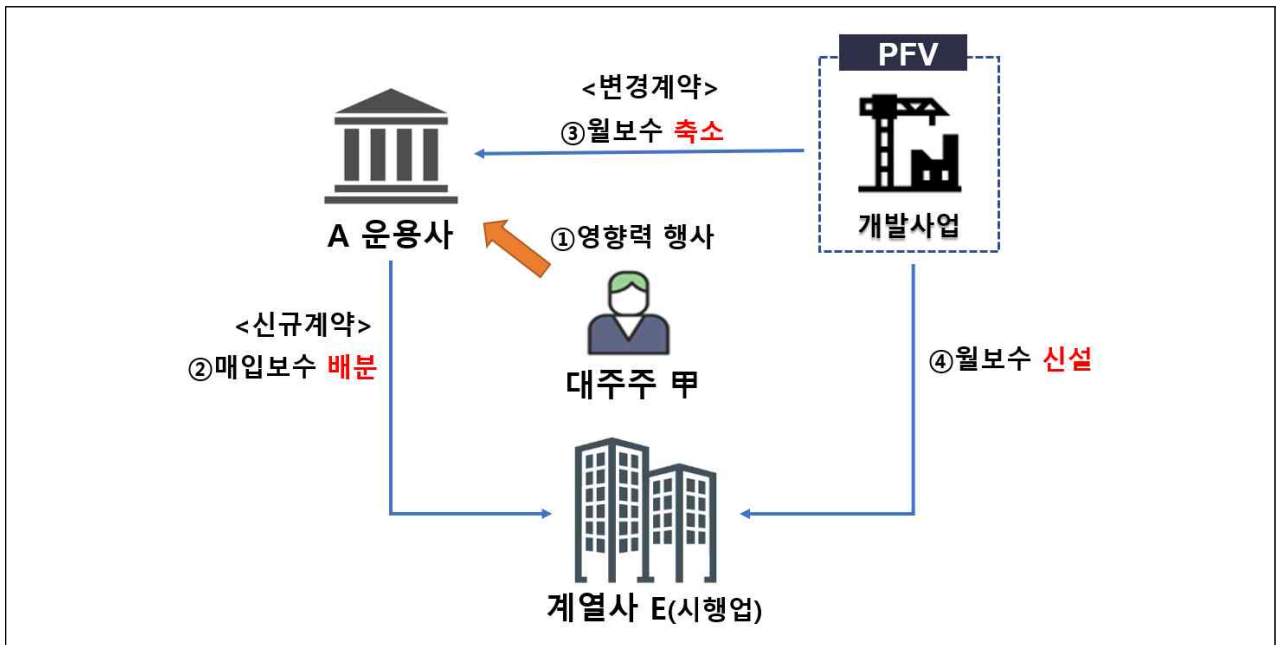
□ 대주주·대표이사 甲은 본인 및 배우자, 직계비속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 E\*(시행업 영위)에게 이익기회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

\* 본인,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분의 대부분을 간접보유

○ A 운용사와 계열사 E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열사 E가 수취할 수수료 증액을 지시

- A 운용사는 이를 위해 계열사 E와 신규계약 및 PFV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자사가 수취할 수수료를 감액하고 계열사 E에 이를 제공\*하는 방식으로 A 운용사의 이익기회를 계열사 E로 이전

\* A 운용사 매입보수를 계열사 E에 배분, A 운용사 월보수 축소 및 계열사 E 월보수 신설



### 3 |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·대표이사 甲의 위법·부당 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
  -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며
  - 향후에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사익 추구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